

뉴스

강의자료 불법 복제 학생 인식개선 필요

이진구 기자 jk6348@khu.ac.kr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최근 교양 수업에서 교재 무단 복제와 거래 사실이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신문은 지난 3월 교재 불법복제 및 거래 현황을 지적하고 위법임을 알렸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관련 기사: 교재 복제물 판매·구매 처벌 대상/대학주보 제1683호 (2022.03.27.))

지난달 모 교양 수업 담당 교수는 공지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된 교재 PDF를 거래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범적 처벌을 경고했다. 관련해 출판사 측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기간 내에 알려온 학생에 한해 잘못을 눈감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재 PDF를 거래한 학생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지금도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 등에서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재 PDF 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 녹화본 ▲족보 거래 모두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다. 강의 자료 거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적인 범위를 넘어 배포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30조 와 제46조를 침해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서 오랫동안 묵인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대희 부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 교수)은 인식 개선과 부득이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막상 저렴한 PDF 복제물을 구할 수 있다면 구매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부위원장은 "공급자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며 "저작권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족보의 경우 매 학기 문제를 동일하게 내는 교수의 수업일수록 학생들의 의존이 높고, 거래가 다수 발생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교수들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낼 것을 요구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표했다.

지난 3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판문화원이 예고한 교재비 절감과 전자책 출간 방안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복제가 쉬운 상황에서 원본이 비쌀수록 복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복제는 타인의 저작권 및 창작물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인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본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는 조언도 덧붙였다.



에코 캠페인 포스터(왼쪽), 중앙도서관 내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김가연 기자)

중앙도서관 에코캠페인 개최해

김가연 기자 rkdu0617@khu.ac.kr

【서울】 중앙도서관이 관내 음료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Eco+KHU) 캠페인'을 운영한다. 캠페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인스타그램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중간고사 기간, 중앙도서관은 음료 컵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학생들이 음료가 남아 있는 채로 음료 컵을 버리거나, 음료 컵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는 등 음료 컵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 장예지(정치외교학 2020) 위원장은 "도서관 내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배수구에도 늘 음료찌꺼기가 쌓여 있어 청소노동자분들이 고충을 토로했다"며 "특히 도서관 이용이 많아지는 시험 기간에는 쓰레기 배출이 크게 증가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도자위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었고, 마침 도서관 측에서 캠페인을 제안해주셨다"고 캠페인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캠페인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을 맞아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장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챌린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다"며 "챌린지 기간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인

스타그램 스토리에 음료를 비운 음료 컵을 게시하면 된다. 이때 음료 컵은 도자위가 제작한 인스타그램 필터를 적용한 상태에서 중앙도서관 내부를 배경으로 촬영돼야 한다. 참여한 학생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받을 수 있다.

도자위와 함께 관내 쓰레기 문제를 논의한 중앙도서관 김지영 관장은 "학교 차원에서 도서관 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학생들도 해당 문제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며 "도서관 이용자와 청소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자위와 계속된 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 진행 소식을 접한 김다연(국어국문학 2019) 씨는 "인스타그램 챌린지 형식의 캠페인이 학생 참여율이 높을 것 같다"며 "도서관 내 무분별한 쓰레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장학명	모자이크장학	장학명	모자이크장학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21. 12. 01. ~ 2022. 06. 13. 기간 내 취득 실적 (단, 2021-2학기 포인트 기인정내역 제외) 신청가능 포인트 :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 포인트 합산 장학금 규모 : 10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포인트 환산기준 : 1포인트 1원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 포인트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 별 1개 등급만 인정 -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휴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원성적 기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신청기간 : 2022. 06. 13.(월) ~ 2022. 07. 17.(일) 24:00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2-1학기 모자이크장학」신청하기
		포인트 인정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 취득한 실적 증빙 제출기한 : 2022. 06. 13.(월) ~ 2022. 07. 17.(일) 24:00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비대면 제출 원칙/제출 전 서류 제출방법 관련 단과대학 행정실 공지 확인) 서류 위조 혹은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장학은 환수되며 해당 학생은 모자이크장학 추후 지원 불가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과대학 : 실적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학생지원센터 :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
			지급일 : 2022. 08. 31.(수)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